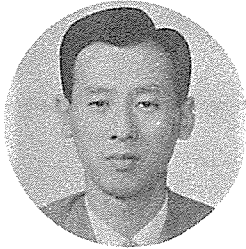


# 中央大學校 理工大建築工學科長 金德在氏



5月12日 오후 3時頃.

편집자는 中大 建築工學科長室을 녹크했다.

金:글쎄요. 제가 건축을 전공한 동기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만, 소년시절부터 건축을 좀 해 봤으면 한 막연한... 동기가 본인이 「경기고」에서 「서울工大 建築科」에 진학을 한 후 오늘날까지 자연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의장과 구조의 두 계통으로 나누는데 저는 구조가 전공이고 보니, 他部門에 비해서 너무 딱딱해서 여간 무미건조하지가 않아요.

編:中央大學校에 오시기 전에는...?

金:仁荷工大 建築工學科에 있었어요. 元正洙 선생님과 같이 있었죠.

編:혹 外國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느 나라에.....

金:저는 미국을 택하겠어요. 옛날엔 독일을 주목했다고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건축 구조면에선 특히 미국이 으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유학을 권유한다면 미국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編:서울의 건축상에 대해서.....

金:지난해 「와우 아파트」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이러한 예는 70年前에 미국 시카고 같은 都市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우선 建築이 잘 돼자면 土木工事が 먼저겠죠. 그런 후 建築이 따라야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土木과 建築이 서로 병행하고 있던 말예요. 그리고 建築은 역시 都市計劃에 의존해서 세워져야 하겠

죠.

全体的인 바란스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人口는 자꾸 증가해서 都市集中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고, 또한 高層建物の 必要性도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따라 건축 자재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고층건물의 붐은 여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고적은 해치지 말고 고적과 잘 조화시켜서 건축되었으면 합니다.

編:존경하는 건축가는.....

金:이태리의 NERVI氏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의 건축은 理論과 實驗이 서로가 결부되었을 때 비로소 建築을 하는데 역시 구조적으로 잘 된 것은 의장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음으론 「루이스·칸」氏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作品마다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哲學이 있어 世界的으로 좋은 評을 받고 있습니다.

編:이 기회에 一線 건축사에 대한 요망 이랄까... 여기 대해서.....

金:한말로 말해서 우리나라 건축사는 外國의 建築士에 비해서 부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外國에서는 구조와 의장이 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한 사람의 建築士가 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축사도 사회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향상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해서 많은 개몽과 지도가 있어야겠죠.

編:끝으로 본 협회에 대해서

金:三團體가 잘 융화되면 될 수록 우리 나라의 建築은 發展하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한다면 국가에서 인정한 建築士는 누구나 한 멤버로서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編:바쁘신 중에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